**출2910 Note**

**◆안수에 대하여 :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안수 (호크마 주석에서)**

성 경: [창48:14]주제1: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주제2: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

▶ 이스라엘이...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 안수(\*)가 축복을 위하여 시행된 최초의 경우이다. 본래 안수란 자신의 가진 그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수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는 상징적 행위로 자주 시행되었다(48:13; 민 27:18; 신 34:9).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안수를 하였는데 이는 안수하는 자가 지닌 권위나 능력 등을 안수 받는 자에게 전가하여 그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케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행 6:6;8:17; 딤전 4:14; 딤후 1:6).

이외에도 안수는 여러가지 목적에서 시행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출 29장, '안수에 대하여'를 참조하라.

성 경: [출29:10]주제1: [제사장 위임식 규례와 상번제]주제2: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

▶ 안수 - 희생 제물로 바쳐질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사람과 제물을 동일시하여, 그 제물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레1:4;4:4;8:15;민 8:10, 12).

이외에도 성경에는 안수의 예가 자주 있는데 이를 살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신성 모독자를 돌로 칠 때(레 24:14) : 이 때는 신성 모독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음으로써 손상된 자신의 인격과,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전가시킨다는 의미이다.

(2) 병을 고칠 때(막 6:5:행 28:8) : 치유의 능력을 안수를 통해 병자에게 옮긴다는 의미를 지닌다

(3) 성령을 받게 할 때(행 8:18) : 이때의 안수는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4) 직분을 위임할 때(행6:6;13:3; 딤전 4:14) : 안수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와 직분, 능력 등을 타인에게 전수함을 뜻한다<29:11-37 강해, 안수에 대하여>.

이처럼 성경 가운데는 안수가 자주 나타나며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그 효용성을 잘 이해하며 신중히 시행해야 할 것이지, 결코 안수를 인위적인 목적으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안수는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단계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히 6:2).

성 경: [레1:4]주제1: [번제에 관한 규례 및 그 제물]주제2: [소의 번제]

▶ 안수할지니 - 안수(按手)는 피차간 서로 언합하여 하나기 됨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안수의 목적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타인에게 전가(轉嫁)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제물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신과 연합된, 안수받은 제물의 피흘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속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제물 드리는 자는 자기 대신 처참히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속죄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체험해야 했다.

한편 '안수할지니'에 해당하는 원어 '사마크 야도'(\*)는 '그가 자신의 손을(위에) 얹힐지니'란 의미인데 원어상 그 말 속에는 두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즉 (1)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자신의 손을 제물 위에 놓아야 한다는 점과 (2) 제물 위에 손을 얹되 '힘껏 단단히 누르면서' 얹어야 된다는 점이다(Keil).

특히 이 점에 대해 유대 랍비들의 말을 빌리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의 양손을 희생 제물의 양 뿔 사이에 얹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눌러야 했다고 한다(Matthew Henry).

성 경: [레3:2]주제1: [화목제에 관한 규례 및 그 제물]주제2: [소의 화목제]

▶ 안수하고 - 제사시 안수(按手) 행위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신의 양손을 양뿔 사이에 얹고 힘껏 내리 누르는 행위를 가리킨다(Mat-thew Henry, KeIl, Lange).

안수가 갖는 2대 의미는 연합(聯合)과 전가(轉嫁)이다. 자세한 내용은 1:4 주석을 참조하라.

성 경: [레4:15]주제1: [속죄제에 관한 규례 및 그 제물]주제2: [회중을 위한 속죄제]

▶ 장로들이 .....안수하고 - 제사 드릴 때 제사 규례상 제물 드리는 자는 전가(轉嫁)와 연합(聯合)의 상징으로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자신이 직접 안수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이 일일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과 수송아지는 하나로 연합되고, 동시에 회중의죄가 수송아지에게 전가되면서 수송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중의 죄는 속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출 29:1-37 강해, 안수에 대하여>.

물론 이런 행위에 있어 실제 안수 자체나 제사 규례 자체에 사죄 능력이 있어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구약적 안수와 희생 제사의 의미는 하나의 모형으로써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代贖)사역을 예표해 줄 뿐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사 규례 속에 담긴 회개의 정신과 대속의 정신을 깊이 깨달아야만 했다.

성 경: [레9:22]주제1: [제사장 취임식]주제2: [제사장 취임식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기쁘게 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 제사장으로서 그의 첫번째 축복을 하였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당신의 중재자적 희생의 사역을 완성한 후, 당신의 교회를 위해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상시킨다(눅 24:50-53).

한편 고대 히브리사회에서 축복해야될 대상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으나(창 48:14). 여기서는 많은 회중을 그처럼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을 들어 축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Lange).

성 경: [레16:21]주제1: [대속죄일 규례]주제2: [백성을 위한 속죄제]

▶ 두 손으로 ... 머리에 안수하여 - 이것은 구약 시대 시행된 일반적 양식의 안수이다. 안수는 축복을 빌기 위해(창 48:14),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막 1:41)으로, 그리고 성별의 표시(민 8:10)로 시행되었다(출 29:1-37, 안수에 대하여). 여기서는 제물의 안수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제물의 안수는 일반적으로 죄의 고백과 병행되어 행해졌다. 여기서는 곧 대제사장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범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편 특별히 여기서 '두 손으로' 안수한 것이 강조된 것은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달리(4:4) 전민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성 경: [민8:10]주제1: [레위 지파의 성결과 직무 위임]주제2: [레위인의 정결 예식]

▶ 안수케 한 후에 -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그들에게 전가(轉嫁)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여호와께 봉사토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이 바치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모든 책임을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다(레 1:4).

그러므로 이 안수(按手) 행위는 이제 성막봉사의 의무가 이스라엘 전 회중으로부터 레위인에게로 공식 전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혹자(Keil, Matthew Henry)에 의하면, 이때 안수는 백성 전체에 의해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들이 대표로 나와서 집행했다고 한다<출 29:1-37 강해, 안수에 대하여>. 이것이 타당한 견해이다.

성 경: [민27:18]주제1: [여자 상속법 제정]주제2: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

▶ 안수하고 - 어떤 권위나 책무를 타인에게 전수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각종의 은사를 부여한다는 상징적 행위로서 뿌리 깊은 의식이다(8:10, 12;창48:14), 이는 신약 시대에까지 사용되고 있다(행6:6;딤전4:1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출29:1-37 강해, 안수에 대하여>를 참조하라.

한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는 것은 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함을 뜻한다. 그러나 모세가 지닌 책무나 직임 자체가 안수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책무는 모세에게만 국한된 고유한 것이며,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책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다만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존엄성만 전달되는 것이다(20절).

성 경: [신34:9]주제1: [모세의 죽음]주제2: [여호수아의 위임식]

▶ 모세가...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 자신의 죽음을 고지(告知)한 후 모세는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삼았다(31:14, 15;민 27:15-23). 따라서 모압 평지에서 베푼 모세의 안수(按手) 예식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도자적 권한을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두 넘긴다는 의미를 지닌 공식적인 위임(委任) 의식이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여호수아의 등장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자연스럽게 이어 줄 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시사한다.